

제14권 12호

2024. 6. 10~2024. 6. 23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논단** 21세기 新냉전 시대의 도전과 기회
- 이슈분석** 자영업 생태계 변화와 상생 실효성 제고 방안
- 금융경영브리프** 금융회사의 임베디드 금융 활용법
AI로 변화하는 글로벌 은행의 HR 전략
-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글로벌 통화정책 방향 전환 본격화
외 환 : 나홀로 약세를 보인 아픈 손가락 원화
-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송형은(hesong)

논단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이슈분석

연구위원 김문태(kmt)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안성학(shahn0330)
수석연구원 신상희(sanghuishin)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김용태(ket1006)
외 환 | 연구원 진옥희(okheejin)

금융지표

연구원 방승연(sybang)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 01 **논단** 21세기 新냉전 시대의 도전과 기회
- 04 **이슈분석** 자영업 생태계 변화와 상생 실효성 제고 방안
- 08 **금융경영브리프** 금융회사의 임베디드 금융 활용법
시로 변화하는 글로벌 은행의 HR 전략
-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글로벌 통화정책 방향 전환 본격화
외 환 : 나홀로 약세를 보인 아픈 손가락 원화
- 16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21세기 新냉전 시대의 도전과 기회*

장보형 선임연구위원

美中을 필두로 진영 갈등이 확산되면서 ‘지경학적 분절화’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20세기 후반 세상을 갈라놓았던 냉전 시대가 부활하는 것일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진영 대립을 넘어서 이른바 비동맹 진영의 ‘연결국’들이 간접적인 무역·투자 연계를 지탱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동안 달러 헤게모니에 기반한 국제 통화·금융질서도 서방의 고강도 제재 위험과 맞물려 분절화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원화를 포함한 ‘비전통적 준비통화’의 새로운 기회에도 관심이 요구된다.

∴ 지경학적 분절화에 따른 신냉전의 위험

세계경제의 양강, 美中 갈등이 좀처럼 진정되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시대 막을 올린 지정학적 긴장이 코로나 충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거치며 바이든 시대 들어 확대일로를 거듭하고 있다. 연말 미국 대선의 ‘리턴 매치’를 맞아 이제 미중 갈등은 변수가 아니라 아예 상수로 고착된 모습이다. 그 여파는 양강을 필두로 한 진영 대립 속에 세계경제의 분절화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 진영의 지정학적 노선에 기반한 국제 무역·투자 흐름의 재조정, 즉 ‘지경학적 분절화’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이다. 20세기 후반 세상을 적대 진영으로 갈라놓았던 냉전 시대가 부활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세계 성장이나 무역 자체에 아직 직접적인 악영향은 뚜렷하지 않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수축되던 세계 무역은 여전히 GDP 대비 40%대에서 등락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계화가 끝나고 脫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미국, 또 점차 중국과 같은 초대형 허브에 집중된 네트워크가 분산화, 다변화 되고 있는 면도 있다. 하지만 그 배후에 적대적인 진영간 대립, 특히 무역 및 투자 흐름의 ‘분절화’(fragmentation) 징후가 확산되고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IMF 등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국제 무역 및 투자 관계는 ▲ 미국을 지지하는 진영 ▲ 중국을 지지하는 진영 등 양대 적대 진영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구소련의 붕괴에 이르던 냉전기에도 국제 무역은 꾸준한 회복세를 보였다. 다만 무역 회복은 주로 진영내에 국한된 현상일

美中 갈등 심화 속 냉전 시대의 부활?

脫세계화는 아니지만 지정학적 노선에 따른 분절화 징후는 뚜렷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냉전 초기와 유사하나
비동맹 '연결국가'의
약진에 주목

뿐, 진영간 무역은 매우 부진했다. 지금도 냉전 초창기와 흡사하다. 진영내 무역은 양호하나, 진영간 무역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진영 대립을 비켜선 이른바 '비동맹 진영'의 약진이다. 실제로 미중 갈등 격화에도 비동맹 진영 위주의 제3국, 즉 '연결국가'(connector)들을 경유한 간접적인 무역·투자 연계가 활성화 되고 있다. 냉전기에는 비동맹 세력의 경제, 외교적 파워가 미약했지만, 현재는 인도를 필두로 멕시코, 베트남 등의 핵심 연결국가들까지 세계 GDP의 1/3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과연 이들이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

❖ 달러 헤게모니는 지속될 수 있을까?

달러 지배를 벗어난
대안 모색 활발

이처럼 국제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투자나 금융 흐름에서도 분절화의 위험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 등 서방의 적성국에 대한 금융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몰수나 자금압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달러 지배를 벗어나 대안적인 국제 지급결제망 구축 및 비달러 외환보유액 확충 움직임이 가시화 되는 모습이다. 금과 연동된 달러를 축으로 삼았던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의 강력한 금융 파워를 기반으로 사실상 국제 결제망과 외환보유액을 지배해 온 달러 헤게모니 혹은 미국 주도의 통화·금융질서가 막을 내리는 것일까?

달러 파워 아직 견조
주로 2등급 통화들의
파워게임 양상

하지만 국제 지급결제망의 핵심 축인 SWIFT 기준으로, 달러는 여전히 무역금융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무래도 원자재를 필두로 다양한 거래가 달러 중심으로 송장 및 결제 처리되고 있는 영향이다. 또한 그동안 달러에 편중된 외환보유액의 다변화 노력이 주목을 끌었지만, 지금도 국제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은 60%에 이르고 있다. 달러의 파워는 아직 견조한 셈이다. 사실 외환보유액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애초 이목이 집중되던 유로나 엔, 파운드 등 전통적인 준비통화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고, 대신에 '비전통적 준비통화'인 위안이나 캐나다달러, 호주달러, 나아가 우리 원화 등의 외환보유액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달러 헤게모니의 종료라기보다는 달러를 제외한 2등급 통화들의 파워게임에 불과한 양상이다.

중국 진영 필두로
脫달러, 분절화 지속


그러나 국제 통화·금융 질서에서도 분절화의 징후가 커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무역금융의 통화별 비중을 보면, 미국 진영에서는 별 변화가 없지만, 중국 진영에서는 달러 비중이 점차 줄어드는 한편, 위안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무엇보다 중국 스스로 위안화 국제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위안 사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의 대외거래에서 위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년 전의 제로 수준에서 2023년말 50%에 육박할 정도로 급등했다. 아울러 최근 외환보유액에서 금 보유비중이 급증하고 있는데, 역시 서구의 제재 위험을 의식한 중국 진영의 자구 노력에 따른 영향이 크다.

❖ 분절화의 도전을 능동적으로 헤쳐가기

지정학적 분절화의 심화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지정학적 세력과의 경제적 연계가 높고 글로벌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된 우리나라에게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우리야말로 미국 주도의 다자 준칙기반 무역시스템과 국제통화체제의 수혜를 크게 누린 국가인 셈이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더 이상 과거처럼 안정적인 글로벌 무대를 기약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수수방관할 수도 없다. 동북아시아 지정학적 요충지에 놓인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정부의 국정목표인 ‘글로벌 중추국가’에 기반하여 국제적, 다자적 차원의 소통과 중재,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잠재적 기회도 존재한다. 우선, 지정학적 진영간의 직접적인 경제 연계는 약화되고 있지만, 비동맹 ‘연결국가’들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연계가 이어지고 있다. ‘넥스트 차이나’의 선두주자 인도는 물론이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멕시코, 브라질, 터키, 남아공 등은 양호한 인구구성비와 풍부한 자연 자원, 그리고 양강의 틈새에서 새롭게 다지고 있는 경제적, 외교적 기회를 기반으로 향후 세계경제의 강력한 견인차 역할이 기대된다. 물론 지정학적 양대 진영에서도 이들을 대상으로 구매와 협박을 통한 편가르기가 예상되지만, 21세기 세계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연결국가와의 공조와 협력은 그만큼 절실해 보인다.

아울러 국제 지급결제망이나 외환보유액의 脫달러 움직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원화, 나아가 국내 금융시장이 국제적으로 일종의 ‘준안전자산’으로 입지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오랜 기간 우리는 외화나 자금흐름과 관련해 이른바 ‘신흥시장의 원죄’에 시달려 왔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한국은 선진경제로 올라섰고, 대외 투자에서도 순투자국, 순채권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국제 통화·금융질서의 혼란은 분명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지만, 동시에 다자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에 기반한 한국 금융의 새로운 도약을 꿈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다자적 소통, 중재,
협력 강화 필요

비동맹 ‘연결국가’의
새로운 기회에 주목

‘준안전자산’으로서
원화의 입지 활용

자영업 생태계 변화와 상생 실효성 제고 방안

김 문 태 연구위원

자영업 부실화 우려와 함께 상생 지원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효과적인 상생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자영업 시장 구조와 경영 환경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자영업은 코로나19 시기 대표적 트렌드인 홈코노미는 약화된 반면 개인화는 지속되는 환경에 처해있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 가족과 자신에 대한 돌봄, 디지털 전환 등의 환경 변화도 동시에 겪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 중인 자영업 생태계 구조를 고려한 접근을 통해 상생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자영업 상생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시장 및 환경 변화에 대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

- 코로나 지원금 종료와 연체율 상승에 따라 자영업 부실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는 한편 사회적 안정을 위한 상생 지원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
- 자영업 상생 전략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자영업 시장의 경영 환경에 따른 업종별 영향과 구조적 변화에 대한 파악이 선행될 필요
- 최근 자영업 생태계는 낮은 진입장벽과 신속한 의사 결정에 따른 특유의 역동성을 발휘하며 코로나19 영향(홈코노미, 개인화), 저출산, 돌봄 확산, 디지털 전환 등 소비 패러다임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며 업종 구성의 급격한 변화를 시현 중
 - 자영업이 환경 변화에 민감한 이유 : ① 낮은 진입장벽으로 진입과 퇴출이 비교적 자유로움, ② 경영자와 현장 실무자가 동일인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 가능

■ 자영업 관련 주요 소비 환경 변화와 영향

키워드	내용	세부 내용	자영업 주요 영향
A (After corona19)	코로나19 이동제한 이후의 변화 (홈코노미, 개인화)	- (가역적 트렌드) 홈코노미 약화 및 리오프닝 - (비가역적 트렌드) 이른 귀가와 개인화 추세 지속	- 가구점 감소/여행업 증가 - 간이주점, 호프집 감소
B (Birth rate)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나타남 - 인구 감소는 자영업에 장기적으로 부정적	- PC방, 독서실, 노래방 감소
C (Care)	돌봄의 사회화, '나'를 돌보기	- 맞벌이, 1인 가구 확산으로 '돌봄'의 사회화 확대 - 시니어, 동물뿐만 아니라 자신을 돌보는 문화도 확대	- 요양원, 동물병원 증가 - 신경정신과, 피부관리업 증가
D (Digitalization)	온라인 플랫폼 중심 디지털전환	-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쇼핑이 급속하게 확산 - 점포 운영에도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 통신판매업 증가 - 자영업 대상 디지털 기술 다변화(플랫폼, AI, 무인화)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① After Corona19] 이동 제한으로 촉발되었던 변화 중 홈코노미 트렌드는 다소 약화되었으나, 개인화 및 이른 귀가 트렌드는 지속되면서 관련 업종에 영향을 미침

- 팬데믹 동안 방역 수칙에 따른 이동 제한으로 집에서 모든 활동을 하는 ‘홈코노미’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외식의 내식화, 이커머스 및 인테리어 수요 증가가 나타남
 - 외식의 내식화 : 배달 및 식료품 수요 확대, 인테리어 : 가구, 가전 수요 확대
- 이커머스, 인테리어(가구, 가전), 요리 및 배달(식료품, 이륜차) 등 홈코노미 관련 자영업 수는 팬데믹 시기 양호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성장성이 저하됨
 - 반면, 이동 제한의 대표적 피해 업종인 여행업은 리오프닝에 따라 최근 회복세
- 홈코노미 트렌드는 리오프닝으로 자연스럽게 약화된 가역적인 변화였다면, 이른 귀가와 개인화 추세는 팬데믹 시기에 강화된 이후 비가역적인 지속성을 나타냄
 - 늦은 시간 단체 모임의 장소로 활용되었던 간이주점, 호프주점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큰 폭으로 감소한 이후 현재도 감소세를 지속
 - 반면 취미생활, 자기개발 등 개인 활동을 위한 스크린골프장, 기술학원은 호조

■ [② Birth rate]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PC방, 독서실, 노래방 사업자 수는 감소한 반면 사진촬영업은 MZ세대의 셀프사진관 인기로 증가

- 저출산 및 학령인구 감소가 자영업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점진적으로 연령대를 높여가며 확대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야기
 - 학령인구(6~21세) : '13년 939.7만명 → '23년 730.2만명 → '33년 526.1만명(전망)
- 학령인구가 주 소비층인 PC방, 독서실, 노래방은 코로나19 시기의 집합 금지뿐만 아니라 이후 소비트렌드 변화와 전기 요금 인상 등으로 크게 감소
 - 경영 환경의 부정적인 변화 : [독서실]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 증가, [PC방] 모바일 게임으로의 수요 이동과 전기요금 인상

■ 홈코노미 관련 자영업 사업자 수 증감률(YoY, %)

업종명	19.3월	20.3월	21.3월	22.3월	23.3월	24.3월
통신판매업	20.4	22.3	36.9	21.4	19.4	10.2
가구점	-0.9	0.0	3.6	3.1	-1.1	-2.9
가전제품 판매점	2.8	0.9	3.2	2.4	1.4	0.0
식료품가게	-4.3	-3.5	1.4	0.3	-1.1	-1.2
이륜자동차 판매점	-0.5	1.1	4.1	2.9	1.2	-0.2
여행사	4.1	0.9	-5.1	2.1	5.7	4.5

주 : 코로나19 영향도가 높았던 '20~'22년은 회색 음영 표시
자료 : 국세청

■ 개인화 트렌드 관련 자영업 사업자 수 증감률(YoY, %)

업종명	19.3월	20.3월	21.3월	22.3월	23.3월	24.3월
호프주점	-4.4	-7.4	-11.0	-7.6	-2.7	-5.7
간이주점	-5.2	-10.0	-13.7	-10.1	-3.8	-6.0
기술·직업 훈련학원	13.5	13.7	14.6	19.6	13.3	6.1
실내스크린 골프점	9.5	7.7	11.8	20.2	18.8	7.9

주 : 코로나19 영향도가 높았던 '20~'22년은 회색 음영 표시
자료 : 국세청

- 학령인구 관련 분야 중 흥미로운 추세를 보이는 업종은 사진촬영업으로, 스마트폰 보급으로 기존 역할이 축소되었으나 젊은 세대의 셀프사진관 인기로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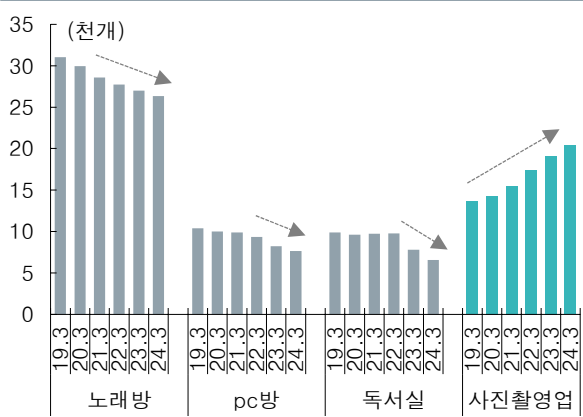
■ [③ Care] 맞벌이, 1인가구, 반려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의 역할이 자영업으로 확장되는 한편 불경기, 경쟁, 오염을 겪는 현대인의 '자기 자신' 돌봄 시장도 성장

- 맞벌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여력 부족으로 기존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졌던 돌봄의 역할이 자영업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가사의 사회적 분업화가 나타남
- 고령 인구를 위한 요양원, 방과 후 교육 및 돌봄을 수행하는 공부방이 증가 중이며, 현대 사회의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여겨지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도 호조
 - '돌봄' 관련 사업자 수 변화('18년→'23년, 단위:개) : 교습소·공부방 30,047 → 55,025, 애완용품점 7,688 → 11,985, 동물병원 4,005 → 4,642, 요양원 3,390 → 4,346('22년)
 - 다만, 대표적 돌봄 시설인 유치원은 저출산으로 감소('18년 9,021개→'23년 8,441개)
- 가사와 업무 병행의 피로, 경쟁 심화와 경기 불안에 따른 스트레스, 환경오염 우려 등을 겪고 있는 현대인이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장도 성장
 - 사업자 수 변화('19.3월→'24.3월) : 신경정신외과 1,675개 → 2,243개, 피부관리업 34,008개 → 64,035개, 헬스클럽 7,248개 → 12,967개

■ [④ Digitalization]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디지털 전환은 자영업 시장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며, 통신판매뿐만 아니라 플랫폼, 무인화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 중

- 이커머스 확대에 따라 통신판매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존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한식음식점을 제치고 자영업 내에서 비중 1위 업종으로 성장
 - 사업체 수 기준 1위였던 한식음식점이 '19.3월 38.0만개에서 '24.3월 41.1만개로 소폭 증가하는 동안 통신판매업은 23.1만개에서 61.7만개로 약 3배 증가

■ 학령인구 관련 자영업 사업자 수 추이



자료 : 국세청


■ '돌봄' 관련 자영업 사업자 수 증감률(YoY, %)

업종명	20.3월	22.3월	24.3월	19.3~24.3월 증감률(%)
교습소·공부방	9.4	11.9	19.4	82.1
애완용품점	7.8	3.1	10.7	55.9
동물병원	1.3	2.8	4.0	16.9
신경정신과 의원	9.3	6.3	6.6	88.3
피부관리업	14.9	14.8	11.9	78.9
헬스클럽	8.1	9.4	11.8	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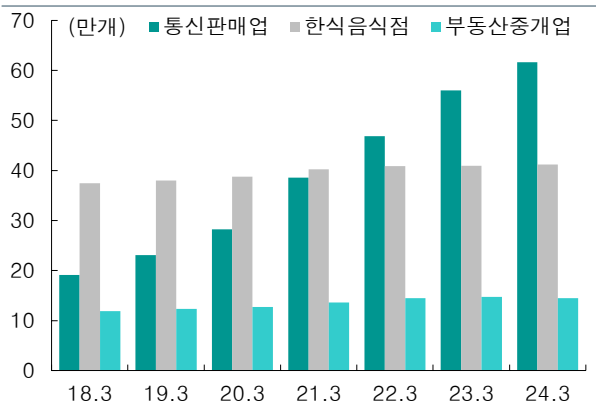
자료 : 국세청

- 디지털 전환은 단순히 이커머스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매장의 경영 지원을 위한 플랫폼(예약 관리, 재료 구매), AI(전화 응대, 고객 관리) 등으로 다변화
- 또한 인력 관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매장 무인화’ 현상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키오스크, 서빙로봇, 조리로봇 등의 디지털 기술 도입이 확대

■ 지원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실 원인, 공간 이용, 디지털 전환 등을 고려한 방안 필요

- 기존의 자영업 역할이 단체 음주가무 등 ‘가정에서 하기 어려운 일’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가사 분담 및 자기 관리와 같은 ‘일상의 유지’를 위한 역할로 확장되고 있어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영업 상생 지원의 가치는 더욱 확대
- 다만, 현재 자영업 상생 지원은 주로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서 구매 지원 및 비용 절감을 통한 수익 보전이 주를 이룸
 - '24.1월 발표된 소상공인 지원책은 에너지, 금리, 세부담 경감과 매출 확보에 초점
- 최근 부실화 원인이 비용 증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구조적 변화(수요 대체, 저출산 등)에서도 야기됨을 고려하여 컨설팅, 업종 전환 등 다양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
 - 자영업 폐업 요인 : ① 내수 위축과 비용 증가, ② 개인화 관련 업종의 유흥(주점, 노래방 등) 수요 대체, ③ 학령인구 감소, ④ 높은 폐업률의 통신판매업 급증
- 특히 공간 이용의 변화를 고려한 입지 컨설팅으로 부동산 비용 절감을 지원
 - 공간 이용 : ① 입지의 모객력 저하 : 지도앱, 배달 확산, ② 1층 역할 축소 : 온라인화와 서비스업 확대, ③ 변화가 수요 저하 : 주점, 호프 등의 단체 활동 수요 위축
- 장기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에 취약한 업종의 구조조정 지원과 함께 자영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용 플랫폼 제공이 확대될 필요
 - 하나은행 ‘사장님ON’ : 노무, 자금, 홍보, 거래내역 등의 디지털 지원 서비스 

■ 국내 자영업 사업자 수 상위 3개 업종 변화



자료 : 국세청

■ 하나은행의 자영업 디지털 지원 서비스 ‘사장님ON’



[하나은행 ‘사장님ON’ 제공서비스]

- 노무서비스(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간편 작성 및 교부)
- 사장님 맞춤 상담 서비스, 정책자금 맞춤 조회 서비스
- 인플루언서 홍보 서비스, 거래내역 간편전송 등

자료 : 하나은행, 언론 자료

금융회사의 임베디드 금융 활용법

안 성 학 연구위원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회사들은 비금융회사와 경쟁하면서도 협업하기도 한다. 금융회사들은 시장 확대를 위해 임베디드 금융을 회사규모, 채널 및 손님 기반, 상품 포트폴리오 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실제 글로벌 은행들은 디지털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기업금융 부문에서도 임베디드 금융을 응용하여 비금융서비스까지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효율적인 임베디드 금융 활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IT투자와 비금융회사와의 제휴 및 지분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금융회사들은 비금융회사와 경쟁하기도 하나 임베디드 금융(Embedded Finance)의 형태로 전략적 협력도 확대

- 임베디드 금융은 비금융회사가 본업을 수행하면서도 자사 플랫폼을 통해 금융 기능을 내재화하여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금융회사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마켓플레이스, 소매업체 등 비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손님기반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사업 기회 확보가 가능
 - 그러나 손님관계가 B2C에서 B2B2B, B2B2C 등으로의 복잡화, 손님과의 직접 관계 포기여 따른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비금융회사에 의한 시장잠식 문제도 존재

■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회사 규모, 채널 및 손님 기반, 상품 포트폴리오 등에 따라 임베디드 금융을 다양하게 활용¹⁾

- 지역 또는 특정 부문에 한정된 은행은 임베디드 금융을 통해 시장 확장이 가능
 - 美 북동부 지역 은행인 Citizens Bank는 애플의 구매자금 조달을 위한 할부대출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대출 기반을 미국 전역으로 확대
- 상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어 있는 대형은행은 더욱 촘촘한 상품구색 제공 가능
 - HSBC는 B2B 핀테크 플랫폼 Tradeshift 및 디지털 물류회사인 FrightAmigo와의 제휴를 통해 무역금융에서의 틈새시장까지 확보하는 등 경쟁력을 더욱 강화
-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인수하거나 구축하여 임베디드 금융을 내재화
 - 美 M&T Bank는 변호사가 고객 자금을 추적·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소프트웨어인 Nota를 직접 개발하여 변호사 협회와 제휴하여 변호사에게 배포


[1] "Embedded finance: The choices and trade-offs for US banks", McKinsey & Company, 2024.4

- 반면 소형 금융회사는 적은 자본력으로 기술개발, 위험관리, 운용역량에 있어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은행 내부 해결보다는 BaaS 등 외부 제휴 방식이 바람직
 - IT 투자여력이 제한적인 소형 금융회사는 은행과 핀테크 연결 플랫폼인 Treasury Prime 등을 통해 예금 및 대출 상품을 제공

■ 특히 글로벌 은행들은 임베디드 금융을 발전시켜 디지털화가 어려운 기업금융 부문에 비금융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기업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경쟁력을 제고

- 유럽 대형은행들은 디지털 기업금융플랫폼을 고도화하고 기업규모별로 세분화된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Santander는 수출입금융플랫폼을 구축하여 무역금융에서 경쟁력을 확대하고 NatWest(英)는 소기업 전문 플랫폼인 Mettle을 별도로 독립법인화하여 운영
- SMFG는 비금융회사와의 제휴뿐만 아니라 비금융자회사를 설립하여 데이터관리, 인사, 마케팅, CRM, 보안, 문서관리, 기업컨설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
 - 디지털플랫폼인 Plaritown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여 그룹 내 비금융자회사와 외부 제휴 비금융회사를 기업에게 연결하여 디지털전환 지원과 비금융서비스를 제공

■ 국내 금융회사들은 비금융회사 역량을 자사 플랫폼으로 확장시키는 등 임베디드 금융을 활용하여 고객 기반을 확대하고 복합적인 금융 및 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 국내 금융회사들은 비금융서비스까지 내재화하는 등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기존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비금융회사와의 경쟁 심화에 대비할 필요
- 임베디드 금융 및 BaaS 등을 통한 손님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IT 투자와 비금융회사와의 제휴 및 지분투자 확대가 필요 

■ 은행 유형에 따른 임베디드 금융 형태

	주요 형태	내용	사례
제휴	소형은행	· 적은 자본력으로 인해 자체 개발보다는 BaaS 등 외부 제휴 형태가 바람직	· Treasury Prime, Unit, Bond 등 외부 플랫폼과 제휴를 통해 자사의 예금 및 대출상품을 제공
	지역 및 부문별 특화은행	· 현재 핵심시장 이외의 지역 및 부문으로 시장 범위 확대가 가능	· 美 북동부지역 은행인 Citizens Bank는 애플 할부대출 서비스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
	상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된 대형은행	· 상품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틈새시장 추가 확보 통한 경쟁력 강화	· HSBC는 Tradeshift(B2B 핀테크 플랫폼)와 FrightAmigo(디지털 물류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무역금융 경쟁력을 더욱 강화
임베디드 금융 내재화		· 자체 개발로 임베디드 금융에서 겪었던 손님 경험을 은행 내에서 실현	· 美 Keybank는 의료전문가를 위한 디지털플랫폼인 Laurel Road를 출시하여 학자금대출 채용자 서비스를 제공 · American Express는 Plan It 옵션으로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할부대출 상환계획을 통해 신용카드 구매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여 BNPL을 모방
		· 비금융회사를 인수하거나 구축	· 美 M&T Bank는 변호사가 고객 자금 추적 관리 소프트웨어인 Nota를 개발하고 변호사 협회와 제휴하여 변호사에게 공급 · JPMorgan Chase는 의료비 지불시스템인 InstaMed를 인수(2019)

자료 : Mckinsey & Company(2024.4)

AI로 변화하는 글로벌 은행의 HR 전략

신상희 수석연구원

글로벌 은행이 금융 인력을 줄이는 반면 AI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는 모습은 금융권의 HR 전략이 금융에서 기술로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실무에 접목되고 생산성 제고라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면서 글로벌 은행들은 애널리스트 등 일자리 감축을 검토하거나 직원 대상 AI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AI로 인한 HR 전략 논의가 아직 본격화되고 있지는 않으나, AI로 인한 역량 수요 변화에 대비해 점차 AI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은행은 금융 인력 대신 AI 전문가 채용을 늘리며 인재 채용의 축을 기술로 전환

- UBS, Wells Fargo, Citi 등 글로벌 은행은 2023년 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감축^[1]
 -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일자리 감축으로, 금리인상으로 인한 증시 및 기업공개 부진, SVB·Credit Suisse 사태 등 은행 위기가 영향
- 반면 JP Morgan, Capital One, Wells Fargo 등 상위 50대 글로벌 은행의 AI 인재 채용은 '24년 3월 기준 직전 6개월 대비 약 9% 증가 (Evident)^[2]
 - 이중 JP Morgan은 50대 글로벌 은행 평균보다 5.7배 더 많은, 1만 명 이상의 AI 전문가를 보유하여 AI 인재 채용을 선도하는 은행으로 부상

■ AI가 본격적으로 실무에 투입되며 글로벌 은행의 인력 감축 우려가 현실화되는 추세^[3]

- 생성형 AI는 자동화 등을 통해 금융권 사무 노동력을 대체 가능
 - 생성형 AI는 자동화 또는 업무 보조·증강을 통해 은행 직원 업무시간의 73% 가량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Accenture)
- 주요 글로벌 은행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실무에 투입하는 상황
 - Deutsche Bank는 상장기업에 대한 질의에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부가정보에 대한 요약 리포트를 생성하는 AI 서비스 운영
 - Goldman Sachs는 기업 재무 자료·문서를 IPO 공시보고서(S-1)로 변환하는데 활용
-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 주요 투자은행은 신입·미숙련 애널리스트 채용 규모를 2/3까지 줄이거나 급여를 삭감하는 방향을 검토 중(NYT)

[1] "Banks shed 60,000 jobs in one of worst years for cuts since financial crisis", Financial Times, 2023.12.26.

[2] "Evident AI Dispatch - Talent Capability", Evident, 2024.5.9.


[3] "The Worst Part of a Wall Street Career May Be Coming to an End", New York Times, 2024.4.10.

- JP Morgan의 Jamie Dimon CEO는 연례 주주 서한에서 AI에 의한 직무 대체 가능성을 언급하며 ‘특정 직종이나 역할이 줄어들’ 가능성을 인정(2024.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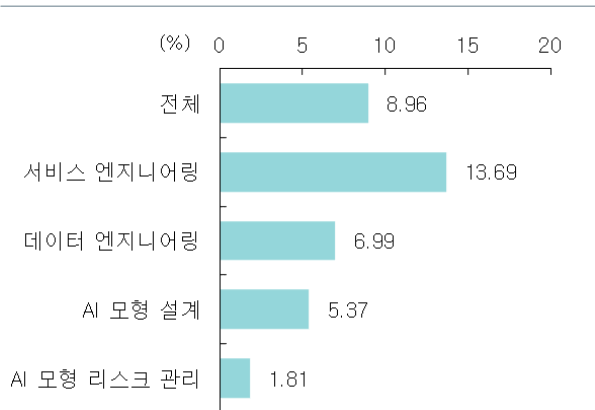
■ AI의 생산성 제고 효과가 입증되면서 일부 글로벌 은행은 직원 대상 AI 교육을 추진

- ChatGPT, Microsoft Copilot 등 업무비서 서비스가 고도화되며 직장에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생산성을 제고하는 파워 유저가 부상⁴⁾
 - AI 파워 유저는 정보 분석, 시각화, 고객 응대 등에 AI를 활용하여 업무 처리과정을 더욱 효율화할 가능성이 66%나 더 크며 일평균 30분 이상의 시간을 단축
- 일부 글로벌 은행은 AI의 직무 생산성 제고 효과를 고려해 직원 대상 교육 추진
 - JP Morgan은 모든 신입사원에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 등 AI 교육을 받게 해 기술 변화로 인한 직원 생산성 향상을 지원
 - 홍콩 금융감독청은 홍콩 은행들이 AI 등과 관련해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혜 직원의 2%는 새로운 직무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고 발표

■ 국내 금융사도 AI 도입으로 인한 역량 수요 변화에 대비하여 직원 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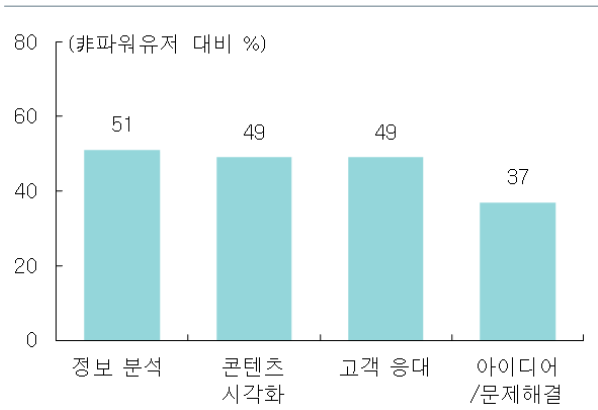
- 국내에서는 AI로 인한 금융권 인력 감축 등 HR 문제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나, 우수 연구기관에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전반에 대한 분석 수행
 - 한국은행(2023)은 고학력·고소득 종사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으므로 일자리 대체 위험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분석
 - 다만, 해당 분석에서 금융·보험업의 AI 노출 수준은 40%대 내외로 평균보다 낮음
- 금융회사는 AI시대를 맞아 임직원의 관련 역량 제고를 위해 교육을 강화할 필요
 - 현재 하나·국민·신한 등 주요 국내은행은 국내 우수 대학과 연계하거나 자체적으로 직원 대상 AI 교육·훈련 과정을 구축 및 운영 중 

■ 글로벌 은행의 AI 인력 증가율



자료 : Evident

■ AI 파워 유저의 주요 AI 활용 영역



자료 : Microsoft-LinkedIn

[4] “2024 Work Trend Index Annual Report-AI at Work Is Here, Now Comes the Hard Part”, Microsoft-LinkedIn, 2024.5.8.

금리: 글로벌 통화정책 방향 전환 본격화

김 용 태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캐나다와 유로존이 기준금리 인하(25bp)를 결정한 가운데 美 경기의 둔화 가능성도 높아지며 하락했다. 국내 금리는 대외금리 하방압력 속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흐름이 지속되면서 하락했다. 6월 ECB에서 라가르드 총재는 기초적인 물가 둔화 흐름, 긴축적 통화정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 완화가 적절하다고 언급하며 25bp 인하를 결정했다. 향후 국내외 금리는 글로벌 통화정책 방향성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금리 상단이 낮아지는 흐름이 나타날 전망이다.

■ 글로벌 금리는 유로존 금리 인하 결정과 美 경기 둔화 조짐에 안전자산 선호 높아지며 하락

- 美 국채 입찰이 부진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연준 인사의 매파적 발언(낮지만 금리인상 가능성 상존)과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예상치 상회로 시장 경계감 상승
 -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pt) : 4월 97.0 → 5월 102.0 (예상 96.0)
- 이후 발표된 1분기 美 GDP 수정치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하향 조정(1.6%→1.3%, QoQ연율화)되고 PCE물가상승률도 시장 예상에 부합하면서 경계심 완화
 - PCE/근원PCE 물가상승률(% , YoY) : 4월 2.7/2.8 → 5월 2.7/2.8 (예상 2.7/2.8)
- ISM제조업PMI가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고용 시장도 둔화되면서 美 경기 모멘텀이 위축된 가운데 캐나다와 유로존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美 금리 인하 기대 확대
 - 美 구인공고 수(천 명): 2월 8,756 → 3월 8,488 → 4월 8,059 (예상 8,370)
- 글로벌 금리는 견조했던 美 경기의 둔화 조짐에 안전자산 선호 높아지며 하락
 - 미국채 2/10년물 금리(%) : 5.24일 4.96/4.47 → 31일 4.88/4.50 → 6.6일 4.73/4.29


■ 국내 금리는 대외금리 하방압력 속에 소비자물가상승률 둔화 흐름 지속되며 하락

- 韓 1분기 GDP 잠정치가 속보치와 동일하게 전분기 대비 1.3% 성장으로 발표됐으나 민간소비가 하향되고 수출이 상향되면서 내수의 성장기여도 둔화(0.7%p→0.5%p)
- 5월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상승률 하락하며 둔화 흐름 지속
 - 韓 소비자물가/근원물가상승률(%) : 3월 3.1/2.4 → 4월 2.9/2.2 → 5월 2.7/2.0
- 韓 금리는 주요 선진국들의 기준금리 인하와 물가상승률 둔화 영향으로 하락
 - 국고 3/10년 금리(%) : 5.24일 3.42/3.52 → 31일 3.45/3.56 → 6.7일 오전 3.32/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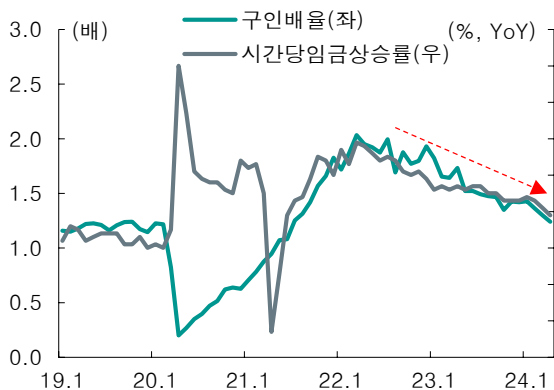
■ 6월 ECB, 2년 만에 기준금리 인하로 방향 전환하며 글로벌 통화정책 다원화 흐름 본격화

- ECB는 높아진 임금상승률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으로 인플레이션이 '25년까지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초적인 물가 둔화 흐름, 통화정책 파급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25bp 인하를 결정
 - 채용자금리/예금금리/한계대출금리(%) : 인하 전 4.50/4.00/4.75 → 인하 후 4.25/3.75/4.50
- 기준금리 인하에도 '24년 ECB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고 '특정 통화정책 경로를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언급하며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 유지
 - '24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전망(%) : 24.3월 0.6/2.3 → 6월 0.9/2.5 (각각 +0.3/+0.2)
- 스위스·스웨덴에 이어 유로존·캐나다도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팬데믹 이후 연준 중심으로 일원화됐던 선진국 통화정책이 자국 경제 환경에 맞춰 다원화되기 시작
 - 경기 부진으로 수요측 물가상승압력이 제한적이었던 지역(유럽·캐나다) 금리 인하를 시작한 만큼 美 경기 둔화 흐름 지속 시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高

■ 글로벌 통화정책 방향성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점진적으로 시장금리 상단이 낮아지는 흐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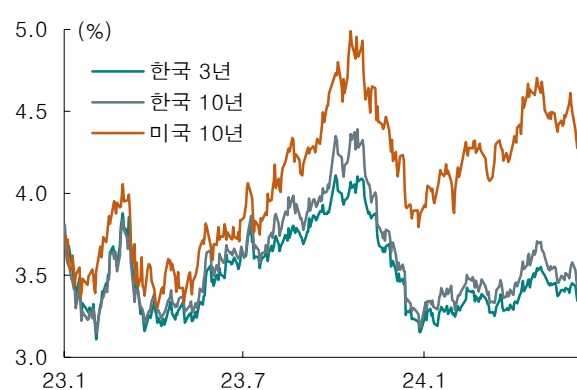
- 자국 성장률 둔화에도 고물가 대응을 위해 美와 함께 긴축적 통화정책을 지속하던 주요 선진국들(캐나다, 유로존)이 물가둔화 흐름 속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
- 견조했던 美 경기 성장 흐름도 누적된 물가 상승 부담, 초과저축 소진에 따른 소비여력 제한, 노동시장 초과 수요 완화 등으로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전망
- 중립금리 상승으로 과거 대비 최종금리 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나 글로벌 통화정책 방향성 전환이 본격화된 점, 한은 총재가 금통위에서 '물가 둔화 시 기준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리 상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전망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20%~3.45%, 3.30%~3.55% 범위로 전망 

■ 미국 구인배율과 임금상승률



자료 : Bloomberg

■ 주요 대내외 국채 금리 추이



자료 : Bloomberg

외환: 나홀로 약세를 보인 아픈 손가락 원화

진 옥 희 연구원

원/달러 환율은 주 초반 美 장기금리 급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 증시 순매도세 등으로 상단을 높였으나, ECB의 매파적 금리 인하에 힘입은 유로화 강세로 상승폭을 축소하였다. 한편, 달러화는 ECB의 신중한 인하 기조 속에 美 고용시장 과열 완화 등 美 경기 둔화 조짐이 부각되자 반락하였다. 향후 원/달러 환율은 美·日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주시하는 가운데 美 긴축 종료 기대 강화 및 6월 BOJ의 국채 매입 축소 전망에 힘입어 1,300원대 중반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원/달러 환율] 주 초반 강달러와 증시 악재 속 상승했으나 매파적 ECB로 상승폭 축소

- 원/달러 환율은 美 장기금리 급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 속에 개별 기업 악재에 의한 외국인 증시 순매도세가 이어지자 한때 1,380원대 후반 진입
 - LG 에너지 솔루션(中 경쟁심화 우려), 삼성전자(첫 노조 파업, HBM3E 납품 연기)
- 다만, 이후 ECB의 유로존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 상향조정에 따른 유로화 강세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을 축소하며 1,360원 대 마감
 - ECB 유로존 '24년 경제전망(3월→6월, %): 경제성장률(0.6→0.9), 물가상승률(2.3→2.5)

■ [국제 환율] 달러화는 美(둔화 조짐)-유로존(회복 조짐) 간 경기 격차 부각되며 약세

- 달러화는 7년물 국채 입찰 수요 부진 등에 의한 장기 금리 급등 속에 상단을 높였으나, 추후 美 고용시장 과열 완화 등 경기 둔화 조짐이 부각되며 반락
 - 美 1Q GDP가 하향 조정된 가운데 경기 선행지표인 ISM 신규 주문 지수가 1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자 경기 둔화 가능성 대두되며 달러화 약세로 연계
- 유로화는 6월 ECB의 연준에 선행한 금리 인하에도 유로존 5월 HCOB 제조업 PMI 전월비 상승 등에 따른 유로존 경기 회복 조짐에 힘입어 강세
 - 특히, 6월 ECB의 25bp 인하가 시장의 예상과 부합한 가운데 라가르드 총재가 향후 금리 인하 전망 경로에 대해 신중한 기조를 표명한 점도 유로화 강세에 일조
- 엔/달러 환율은 달러화 약세 속에 BOJ 총재의 완화적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과 차주 BOJ가 국채 매입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소식이 맞물리며 급락
- 위안/달러 환율은 5월 차이신 제조업 PMI가 2년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Moody's가 '24년 中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조정하는 등 우호적 경기 여건 속에 보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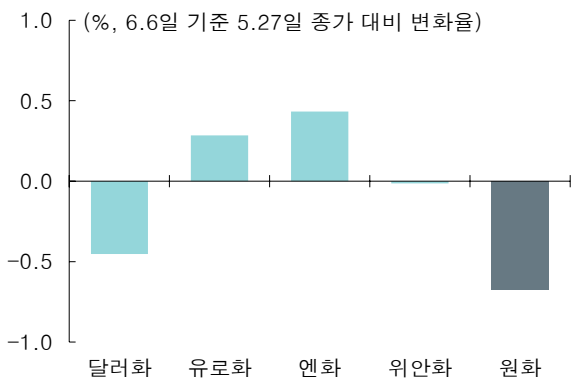
■ 구조적 요인에 의한 외환수급 변화 속 원화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회귀는 어려울 전망

- 원/달러 환율의 장기평균(10년)이 '10년대 1,120원에서 팬데믹 이후 1,241원으로 상승한 가운데 '24년 들어 1,300원대를 지속하는 등 눈높이 상향 조정 필요성 대두
- 中 반도체 국산화율 증가, 이차전지 벨류체인 對中 수입 의존도 확대, 韓·中 경쟁 심화 등으로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의 對中 무역수지 회복은 어려운 상황
 - 對中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반도체('24.4월 기준 34%, MTI)
- 아울러 고령화는 민간 저축을 감소시키는 가운데 복지 예산 지출 수요 확대에 따른 재정수지 악화 등을 통해 경상수지와 원화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
 - 고령화가 예비적 저축 증가로 연계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국처럼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국가의 경우 저축 감소 효과가 두드러진다는 분석 결과(IMF, 2019)
- 이에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美 기준 금리 인하 가시화 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 압력 완화 전망에도 불구하고 상기의 구조적 요인으로 하락은 다소 제한될 소지

■ 원화는 BOJ의 긴축 기조 강화 기대 속 6월 FOMC를 주시하며 약세 압력 완화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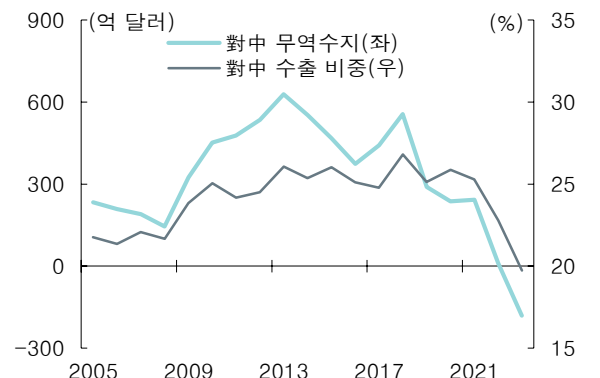
- 파월 의장이 연준의 이중 책무 중 하나인 최대 고용을 강조한 가운데 美 고용시장 둔화가 긴축 종료 기대 강화로 연계되며 달러화 강세 압력은 점차 완화될 듯
 - 단, 연준 인사(카시카리 인상 배제 不可↔윌리엄스 인하 可) 간의 발언이 엇갈리고, 인하 시점 관련 불확실성이 잔존함에 따라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 전환은 제한될 소지
- 아울러 원화-엔화 간 높은 동조성을 감안할 때 6월 BOJ의 국채 매입 축소 가능성에 따른 엔화 강세 전환 흐름에 힘입어 원/달러 환율의 상단은 제한될 전망
- 이에 원/달러 환율은 美·日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주시하는 가운데 향후 2주간 1,330~1,380원에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 **하**

■ 2주 간 주요국 통화가치 변화



자료 : 인포맥스

■ 對中 무역수지와 수출 비중



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내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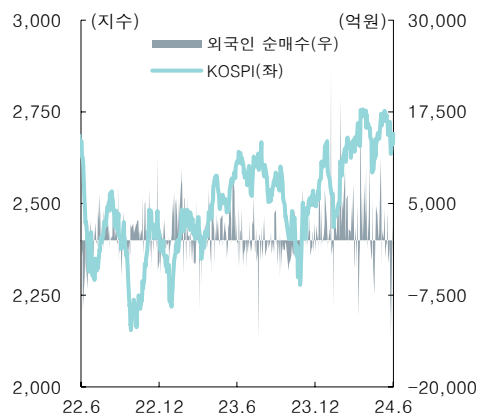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 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23년말	3.91	3.83	3.69	3.90	3.15	3.16
4월말	3.66	3.57	3.65	4.00	3.53	3.59
5월 30일	3.53	3.60	3.60	3.87	3.44	3.49
5월 31일	3.58	3.61	3.60	3.87	3.45	3.50
6월 3일	3.54	3.61	3.59	3.85	3.43	3.47
6월 4일	3.48	3.60	3.57	3.81	3.39	3.41
6월 5일	3.50	3.60	3.55	3.77	3.35	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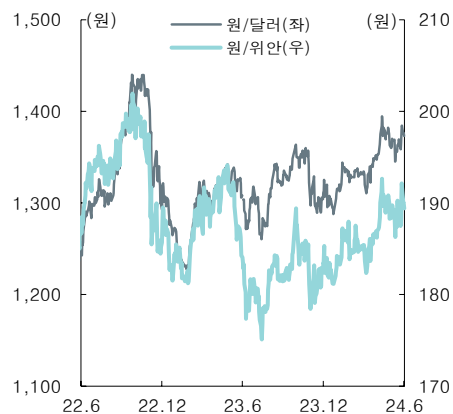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23년말	2,655.3	94,189	460	7,017
4월말	2,692.1	113,471	460	2,384
5월 30일	2,635.4	111,321	373	-7,849
5월 31일	2,636.5	163,539	614	-13,369
6월 3일	2,682.5	139,956	782	1,890
6월 4일	2,662.1	126,490	773	-2,113
6월 5일	2,689.5	136,250	881	5,916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23년말	1,288.0	911.0	181.2	1,425.1
4월말	1,382.0	875.7	190.8	1,473.8
5월 30일	1,379.4	879.6	190.7	1,494.1
5월 31일	1,384.5	879.9	192.2	1,501.8
6월 3일	1,376.1	881.6	190.0	1,500.2
6월 4일	1,376.0	888.2	190.0	1,496.9
6월 5일	1,373.0	879.4	189.4	1,4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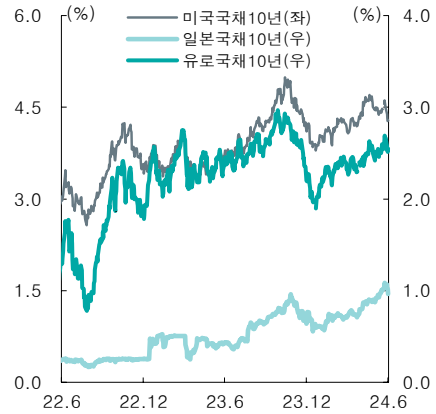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뉴스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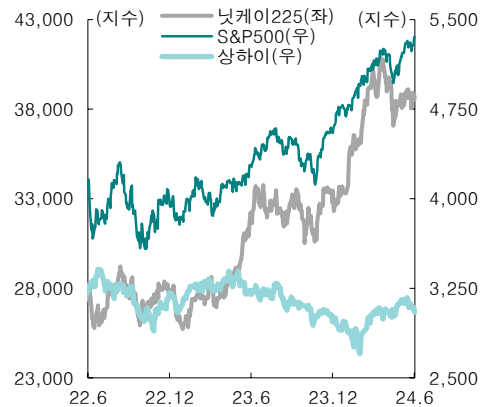
::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23년말	5.33	5.33	4.25	3.88	0.61	2.02
4월말	5.33	5.33	5.04	4.68	0.88	2.58
5월 31일	5.33	5.34	4.87	4.50	1.07	2.66
6월 3일	5.33	5.34	4.81	4.39	1.07	2.58
6월 4일	5.33	5.34	4.77	4.33	1.03	2.53
6월 5일	5.33	5.34	4.72	4.28	1.02	2.51
6월 6일	-	5.33	4.72	4.29	0.96	2.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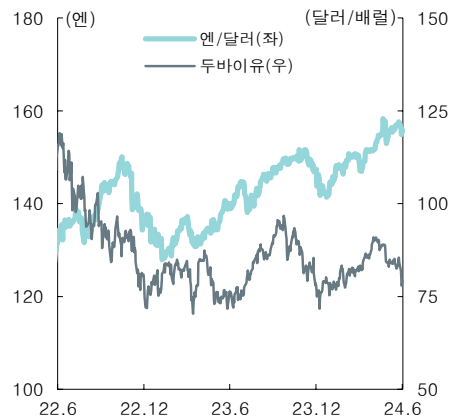
::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23년말	4,769.8	33,464.2	2,974.9	4,521.4
4월말	5,035.7	38,405.7	3,104.8	4,921.2
5월 31일	5,277.5	38,487.9	3,086.8	4,983.7
6월 3일	5,283.4	38,923.0	3,078.5	5,003.5
6월 4일	5,291.3	38,837.5	3,091.2	4,953.4
6월 5일	5,354.0	38,490.2	3,065.4	5,035.7
6월 6일	5,353.0	38,703.5	3,048.8	5,069.1



::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23년말	141.36	1.106	79.1	2,083.5
4월말	157.78	1.066	88.6	2,302.9
5월 31일	157.28	1.085	83.4	2,345.8
6월 3일	156.07	1.090	81.9	2,369.3
6월 4일	154.85	1.088	77.9	2,347.4
6월 5일	156.04	1.087	78.2	2,375.5
6월 6일	155.58	1.089	79.2	2,390.9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12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4년 6월 7일 인쇄

2024년 6월 10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형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12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